



강의 덕성배워 상생의 지혜 모으는 새해가 되길...

강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길

4대강 발원지에서 배우는 편지



황지의 돌에 100m상지. 물이 맑아 하늘과 주변 건물들이 투영되고 있다.

“이 집은 이미 운이 다하였으니 아기를 업고 속히 소송의 뒤를 따라오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라고 일러주었다. 이에 머느리는 곧 집을 나서 송이재를 넘어 구시리(지금의 도계읍) 산마루에 이르렀을 때 뇌성벽력과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 노승의 당부를 잊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버렸고 황부자의 집은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 간곳이 없고 집터는 큰 연못으로 변하였다.(후략)

보살님, 전설의 내용은 다소 허황될지라도 그 속에는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황지의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도 낙동강 발원지로서의 격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몇 가지 깨우침을 줍니다.

아무리 발복하여 부자로 살던 땅도 마음을 약하게 쓰면 복이 다하고 화가 뭉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운이 다하여 꺼져버린 땅에서 다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결이 솟아 연못을 이루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보살님,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에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황지 못의 전설이 이미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귀함과 남의 귀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쳐야 합니다. 전설에서는 노승의 시주가 그 상생의 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깨우쳤다 하여도 그 깨우침을 생활화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중생의 습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를 방황하는 것도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 그만 뒤를 돌아 본 머느리가 이에 해당하는 ‘불안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계를 구사리 산마루에 조성된 머느리 석상을 지역 사람들은 미륵이라 부릅니다. 그때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세속에 남아 돌이 되어버린 탓에 다음 생의 부처로 인식된 것입니다.

보살님, 낙동강 1300리에 깃든 생명들이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길은 없겠습니까? 유난히 공단지대를 많이 끼고 있는 낙동강이기에 수시로 오염물질에 몸살을 앓아 온 낙동강이기에 거기 물줄기에 입을 대고 사는 못 생명들이 서로 상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금강 발원지에서 마음속의 절을 짓다

전북 장수군 장수를 수분리(水分里, 신무산(897m) 능선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는 금강과 섬진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을 수분재에 있던 집에 비가 내려 옹마루를 경계로 남쪽으로 떨어지면 섬진강으로 흘러 남해로 가고 북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흘러 서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금강만큼 흥망성쇠로 얼룩진 이 땅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강도 없을 겁니다. 멀리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스러져야 했던 역사가 그렇고 가깝게는 녹두장군의 함성이 금강에 스며들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분리는 ‘물뿌랭이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뿌리 마을’의 지역 사투리입니다. 이 이름에서 이미 큰 강 발원지가 이곳임을 예시하는 겁니다. 물뿌랭이를 만나러 마을 뒷산을 오릅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바람을 뚫고 2.5km를 오른 곳에서 뜬봉샘을 만납니다.

뜬봉샘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을 창건하기 전 태조 이성계가 신무산 중턱에서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새 나라를 열기위해 산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자 하는 기

도였습니다. 백일째 되는 날 새벽 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이 너울너울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 나라를 열어라”하는 계시가 들렸습니다. 열린 무지개가 뜬 곳에 가보니 풀섬으로 덮인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옹달샘 옆에 상이암을 짓고 샘물을 제수로 삼아 천제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봉황이 뜬 샘이라고 하여 샘의 이름이 뜬봉샘이 되었는데 그 샘이 바로 금강의 발원입니다.

뜬봉샘에서 비롯된 물결은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을 흘러 마을 앞에서 원수분천과 만나 장수읍을 적시고 천천을 끼고 흘러 장수를 벗어나입니다. 다시 진안의 죽도를 휘감아 흐른 뒤 전북과 충청지역을 관통하는 금강이 됩니다. 물길은 395.9km로 1000리에 이릅니다.

제법 추운 날씨지만 뜬봉샘 앞은 포근합니다. 최근 둥근 돌담으로 샘을 단장했고 샘 주변도 터를 고르게 다져 두었습니다. 둥근 샘 앞으로 돌을 깔아 첫 물길을 안내하여 강태등골로 이어지게 했는데 지역사람들의 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보살님,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에서 마음속의 절을 한 채 있습니다. 뜬봉샘 전설에 등장하는 상이암을 지어 봅니다. 지금 마음속에 짓는 상이암은 강물처럼 맑고 다부지 않고 강물처럼 차분 없이 받아들이고 강물처럼



새롭게 정비된 뜬봉샘과 첫 개울물.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세상을 발원하는 지극한 기도로도량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뜬봉샘 성수(聖水)를 길어 차를 달이고 제발보살님께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공양 올리며 강과 사람이 상생하고 산과 사람이 어우러지며 두 중생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기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산강 발원지에서 상생의 길을 생각하다



영산강의 공식 발원지 용소(龍潭)는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가마골에 있습니다. 사기그릇을 굽는 가마

가 많았던 곳이라 이름이 가마골이며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소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합니다. 남한의 부사가 풍류를 즐겨 용소로 놀러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용이 승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용은 노승의 모습으로 부사의 꿈에 나타나 놀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부사는 놀이를 왔고 용은 승천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길고 긴 시간 승천을 꿈꿔 온 용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 비참한 전설의 현장에서 발원한 물결은 담양호와 담양습지를 거쳐 광주로 흐릅니다. 빛 고개를 에둘러 장성과 무등산에서 내려 온 황룡강 극



호남평야와 나주평야의 기원인 곡창지대를 적시는 영산강의 첫 물길 용소.

락강을 만나 도도한 강심을 이룹니다. 그 특성이 바로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를 적시며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어 내는 생산의 원동력이 됩니다.

보살님, 115.5km를 흐르는 영산강의 발원지 용소에서 상생의 길을 생각합니다. 전설 속의 용과 사람은 상생하지 못했지만 물은 흐르고 흐르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물속 생명과 물가의 생명을 구별하지 않고 논과 밭을 가리지 않으며 부지런 한 사람 더 먹고 게으른 사람 덜 먹는 덕행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상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몇몇 운동가와 단체들의 일리라 치부하고 조금 더 정복하고 조금 더 개발하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보살님, 강은 국토의 핏줄이어서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터지면 병이 됩니다. 강의 덕성을 인간의 덕성으로 일체화 하는 지혜가 절실한 이때에 2010년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못 생명 상생을 합정하는 새 아침이길 발원합니다. 나무 4대강 보살 마하살.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 범 패 : 거불, 복청계, 가영, 향수나열, 도량계, 다계작법, 39위, 화청
 -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범고
 - 49재 및 천도재
 - 각단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동동44번지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학장 일해스님

접수 및 문의 053)986-1080
문의 011-9361-5566

45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양성반 45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1월 5일 (화요일)
- 시 간 : 오후 7:00~9:20 (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들

양성반 46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1월 16일 (토요일)
- 시 간 : 오후 2:00~4:20 (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들

문의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이나 갈라진 굳은살. 모를모를, 보습보습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름 즉시 해소 (절탈매,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명,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뱃뱃,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틀음 피로 완전 해소

호박호박텐터, 와산삼매요, 보석연꽃텐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연 (손목, 무릎보호대), 칼라차크라, 배요운대, 다보명차, 아마따차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www.법왕정사.kr

새해맞이 141회 3000배 용맹정진

서울숲 범왕정사 새해맞이 3000배는 2010년 한 해는 예쁜 마음으로 미소 짓고 또 웃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업장소별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맑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경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며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9년 12월 31일(목) 저녁 9시 ~ 2010년 1월 1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흰색법복·조끼, 방수포신 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 (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 (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이프린트(말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텐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범왕정사 서울숲 법당 ☞ 전철 : 2호선 독성역 7번출구 우측으로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숲 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